

『朱子語類』〈讀書法〉에 나타난 活看論

신태수*

|| 차례 ||

- I. 문제 제기
- II. ‘활간’의 개념과 원칙
- III. 활간의 형식과 내용, 그 지향점
 - 1. 활간의 형식
 - 2. 활간의 내용
 - 3. 형식과 내용의 지향점
- IV. 활간 독서법의 성리학적 의의
 - 1. 수양론적 근거로서의 성격
 - 2. 인식론적 방법으로서의 성격
- V. 결론

【국문초록】

朱子は 활간의 개념을 『주자어류』 안의 <독서법> 밖에서 언급하고 있다. 활간론의 개념은 세 가지이다. 大小 分別하기, 초점의 차이 확인하기, 이치에 입각해서 도리 파악하기가 그것이다. 이 세 가지를 하나로 정리해보면 ‘이성적 판단에 의거해서 형식 논리 넘어서기’가 된다.

활간론을 면밀히 따지기 위해서는 형식과 내용의 측면을 골고루 살펴야 한다. 활간의 형식이 갖춘 내적 질서로는 ‘선입관 버리기 → 글의 뜻 파악하기 → 마음 밖으로 나아가기’의 과정을 들 수 있고, 활간의 궁극적인 가치로는 ‘성인의 언어, 인간, 삼라만상을 관통하는 하나의 이치 찾기’를 들 수 있다. 형식과 내용을 전체적으로 볼 때는 우주적 자아의 형성이라는 지향점이 나타난다.

* 영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성리학적 이념에 비추어 활간론이 지니는 의의는 두 가지이다. 활간 독서가 수양론적 근거로서의 성격을 지닌다는 점과 활간 독서가 인식론적 방법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는 점이 그것이다.

주제어 : 주자, 활간, 독서법, 형식과 내용, 우주적 자아, 성리학적 이념.

I. 문제 제기

『朱子語類』〈讀書法〉에서는 독서할 때 글의 의미를 고정시키지 말라고 한다. 사전적인 語義에 얽매이지 않고 전후의 맥락에 의거하여 낱말이나 어절이나 문장을 해석하라는 요청으로 이해된다. 이런 논의는 예로부터 있어 왔다. 예컨대 주자 이전의 佛家에서 사물을 인식할 때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에 사로잡히지 말라고 하며 ‘活法’을 그 대안으로 제시했으니,¹⁾ 이른바 활간론의 연원이 상당히 깊은 편이다. 활간론이라고 해도 차이는 있다. 주자 이전에는 사물인식의 측면에서 활간을 거론하는 정도였고, 주자 〈독서법〉 이후부터 활간이라는 범주 속에 독서의 자세, 태도, 방법, 필요성, 목적 등이 다루어지기 시작했다. 이런 각도에서 볼 때, 〈독서법〉의 조목 245개 가운데서 무려 70개의 조목이 활간론에 해당된다.²⁾

지금까지 주자 〈독서법〉 연구자들³⁾은 독서의 자세, 태도, 방법, 필요성,

1) 불교 臨濟宗 계통의 看話禪에서 活法을 많이 거론한다. 本來面目을 발견하는 방법이 活法이고 紙上面目에 머무르는 현상이 死法이다. 이 용어 외에도 活句와 死句이라는 용어도 많이 쓰인다. 활구와 사구라는 용어는 당나라 전후부터 발견되기 시작한다. 박문기, 『話頭의 내재적 구조 일고』, 『한국불교학』 58, 한국불교학회, 2010, pp.10-22 참조.

2) 활간론에 의거해서 독서의 자세·태도·방법을 파악할 경우, 활간론에 의거하지 않고 독서의 자세·태도·방법을 파악하는 경우보다는 조목의 개수가 더 적다. 독서의 자세·태도·방법이 모두 활간론과 연관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3) 10여 편이 논문집에 실려 있다. 논점이 뚜렷한 경우만을 추려서 소개하면 다음과

목적 등을 활간론이라는 각도에서 조명하지 않았다. <독서법>의 활간론을 인식하지 못하는 이상, 이런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되리라 본다. 활간론을 인식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독서법>에 ‘활간’이라는 용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활간’이라는 용어를 통해 활간론을 확인하려는 논자라면 독서의 자세, 태도, 방법, 필요성, 목적 등이 활간론에 입각해 있어도 찾을 수가 없다. 둘째, 활간론이 산발적으로 나타나는 점이다. <독서법>의 여러 조목 속에 활간론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서, 활간론의 체계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독서의 자세, 태도, 방법, 필요성, 목적 등이 활간론을 형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발견하지 못했으니, 활간론에 대한 인식은 동양 고전 연구가들의 새로운 과제가 된다.

활간론은 구조적 차원의 논의를 필요로 한다. 주지하다시피 구조는 형식과 내용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활간의 자세·태도·방법은 형식적 범주에 속하고 활간의 필요성과 목적이 내용적 범주에 속하므로, 활간론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면 독서법을 구조적 차원에서 다룰 수밖에 없다. 구조적 차원의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는 찾아보기가 어렵다. 여러 논자들이 독서법에 대해 다룬 바 있지만, 독서의 자세·태도·방법을 다루기만 했고 독서의 필요성과 목적 등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지 않았다. 독서법의 형식적 범주만을 다룬 셈이기에 연구 대상은 달라도 論旨는 언제나 엇비슷한 양상을 보인다.⁴⁾ 이런 정황을 감안할 때, 활간론 연구는 그동안 내팽개친 독서

같다. 강영안, 『주자의 독서론』, 『철학연구』 53, 철학연구회, 2009 ; 김기호, 『『朱子語類』<독서법>에 나타난 新意論』, 『인문연구』 59, 영남대 인문과학연구소, 2010 ; 김은경, 『『주자어류·독서법』에 나타난 독서의 의미와 방법』, 『敎員敎育』 22(3),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연구원, 2006 ; 신태수, 『『주자어류』<독서법>에 나타난 독서이론』, 『퇴계학논집』 3, 영남퇴계학연구원, 2008 ; 이용주, 『독서와 수양 : 주자의 독서론 1』, 『종교연구』 15, 한국종교학회, 1998 ; 황금중, 『주자의 독서론』, 『敎育哲學』 47, 교육철학회, 2010.

4) 김기호, 『고전 독서론 연구와 현황과 과제』, 『韓國思想과 文化』 50, 韓國思想文化學會, 2009, pp.48-64에서 이런 지적을 하고 있다.

법의 내용적 범주를 되찾는 한편, 독서법 전체의 실상을 복원해내는 의의도 동시에 지닌다. 활간론 연구를 서둘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필자는 『주자어류』〈독서법〉⁵⁾을 대상으로 활간론의 실체를 확인하고 그 의의를 조명하고자 한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방법론을 적절하게 구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먼저, 구조적 차원에서 활간론에 접근하고자 한다. 활간론이 형식적 범주와 내용적 범주 모두에 걸쳐 나타나므로, 그 형식과 내용을 대별하되 총체적인 의미망을 탐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갈 필요가 있다. 그 다음으로, 활간론의 유학적 의의에 유의하고자 한다. 독서법을 연구한다고 하여 활간론을 만약 문학적 측면에만 가두어 둔다면 실체를 온전하게 파악하기가 어려워진다. 주자는 시대적인 과제를 유학적 차원에서 해결하고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상적인 의의 조명도 반드시 필요하다. 필자가 위의 방법론에 입각할 때, 활간론의 실체뿐만 아니라 활간론 대두의 필연성 및 그 의의가 분명히 드러나리라 믿는다.

II. ‘활간’의 개념과 원칙

‘활간’의 사전적 의미는 ‘유동적으로 보기’이다. 주자에 따르면, ‘유동적으로 보기’를 하는 이유는 이치를 찾기 위함이다. 성인의 언어는 여러 겹으로 되어 있고, 그 속에 이치가 들어 있다. 이치를 포착하기 위해서는 여러 겹을 하나하나 벗겨가며 끝까지 다다를 수 있어야 한다.⁶⁾ 끝까지 도달하기가 무척이나 어렵다. 사람마다 겹을 가늠하는 시각이나 벗기는 방법이 다르고, 각기 다른 시각과 방법이 길을 잃게 만들기 때문이다. 정황이 이러하므로, 시각과 방법으로부터 자유로울 필요가 있다. 즉, 길은 같아 보여도

5) 송주복, 『朱子書堂은 어떻게 글을 배웠나』, 청계, 1999의 번역본에 주로 의거한다.

6) 『朱子語類』 卷10의 조목11과 조목80에 이런 내용이 나온다.

속은 다를 수 있고 겉은 달라 보여도 속은 같을 수 있다고 여겨야 한다. 주자는 이런 취지의 활간론을 『주자어류』 안의 <독서법> 밖에서 언급하고 있다. 활간론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조목을 가려 인용해본다.

- ① 或舉孟子道性善 曰此則性字重 善字輕 非對言也 文字須活看 此且就此說 彼則就彼說 不可死看 牽此合彼 便處處有礙(어떤 사람이 “맹자가 본성이 선하다고 말한 것”을 사례로 들었다. 주자께서 말씀하셨다. 그것은 본성이라는 낱말을 중시하고 선함이라는 낱말을 경시한 것이니, [선함과 본성을] 상대시켜 말한 것이 아니다. 문자는 반드시 유동적으로 보아야 한다. 이것은 이것에 나아가 설명하고 저것은 저것에 나아가 설명하는 것이니, 고정적으로 볼 수는 없다. [만약] 이것을 끝어다 저것에 붙이면 곳곳에서 장애가 생긴다.) <『朱子語類』卷5, 性理2, 조목16>
- ② 賀孫問 其體則謂之易 體是如何 曰體不是體用之體 恰似說體質之體 猶云其質則謂之易 理即是性 這般所在 當活看 如心字 各有地頭說 如孟子云仁 人心也 仁便是人心 這說心是合理說 如說顏子其心三月不違仁 是心爲主而不違乎理 就地頭看 始得(내[섭하손]가 물었다. “그 體를 易이라 부른다.”에서 體는 무엇입니까? 주자께서 대답하셨다. [거기서] 體는 본체의 작용이라고 할 때의 본체가 아니다. 체질이라고 말할 때의 體와 흡사하니, “그 체질을 역이라 부른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이치는 곧 본성이지만, 여기서는 당연히 [그 이치를 살펴] 유동적으로 보아야 한다. 마치 마음이라는 낱말에도 각각 초점에 차이가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예컨대 맹자는 “仁은 사람의 마음이다.”라고 말했다. 仁은 곧 사람의 마음이니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이치를 합하여 말한 것이다. 예컨대 “안회는 그 마음이 세 달 동안 仁을 거스르지 않았다.”고 말한 것은 마음이 위주가 되어 있지만, 이치를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다. 초점을 살펴야 비로소 깨달을 수 있다.) <『朱子語類』卷5, 性理2, 조목20>
- ③ 或曰 想是聖人稟得清明純粹之氣 故其死也 其氣上合於天 曰也是如此 這事又微妙難說 要人自看得 世間道理有正當易見者 又有變化無

常不可窺測者 如此方看得這箇道理活 又如云 文王陟降 在帝左右 如今若說文王眞箇在上帝之左右 眞箇有箇上帝如世間所塑之像 固不可然 聖人如此說 便是有此理(어떤 사람이 말했다. 생각건대 성인은 청명하고 순수한 기운을 품부했기 때문에 그가 죽으면 그 기운은 위로 올라가 하늘과 합치됩니다. 주자가 말씀하셨다. 물론 그렇다. 그 일도 또한 미묘하여 말하기 어려우니, 사람들이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 세상의 도리는 올바르고 마땅하여 쉽게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있고 변화가 일정하지 않아서 헤아릴 수 없는 것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치를 깨달아야면] 비야흐로 그 도리를 생생하게 알 수 있다. 예컨대 “문왕께서 [천하를] 오르내리며 상제의 곁에 있도다.”라고 말한 것과 같다. 만약 지금 문왕이 정말로 상제의 곁에 있다고 말한다면 마치 세상의 진흙으로 만든 동상과 같은 상제가 진정으로 있게 되니, 진실로 옳지 않다. 그러나 성인이 그렇게 말했으니, 곧 그 이치는 있을 것이다.) <『朱子語類』卷3, 鬼神, 조목57>

①과 ②의 활간론은 卷5에 나오고, ③의 활간론은 卷3에 나온다. 卷11과 卷12의 <독서법>에서는 ‘활간’이라는 용어를 구사하지 않으면서 활간론을 개진하므로, 卷3과 卷5의 ①~③은 지침을 언급했고 卷11과 卷12의 <독서법>은 주자와 그 제자들의 대화 사례를 통해 ①~③의 지침을 이모저모 구체화한다고 할 수 있다. 지침을 정확히 파악해야 주자와 그 제자들의 대화 사례도 명료해지므로, ①~③의 활간론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 ①에서는 활간과 死看을 대비시켜 활간의 의미를 부각시키고 있고, ②와 ③에서는 사례를 통해 활간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관심의 초점은 상호 다르지만 ①~③ 모두 활간의 개념을 거론한다는 점에서는 일치된다. 卷3과 卷5의 ①~③에 나타난 활간의 개념을 각기 정리하고, 종합해 본다면 활간의 일반적인 개념을 파악할 수 있으리라 본다.

①에서는 활간의 개념을 ‘大小 分別하기’라고 한다. ①에 의하면 사람들은 大와 小를 잘分別하지 못한다. 가령, 맹자의 성선설에서 언급한 ‘本性’

과 ‘善’은 對言이 아닌데도 사람들은 종종 大小를 오인해서 본성과 善의 크기를 같게 여기곤 한다. 맹자가 善과 惡의 본성 중에서 善만 들어 本性을 거론했으므로, 본성은 크고 善은 작다고 해야 타당하다. ‘本性’과 ‘善’의 의미 범주를 헤아려야 대소를 분별할 터인데, 문장의 짜임새를 보고 착각해 버리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 의미 범주를 제대로 분별하기 위해서는 “같다고 여기면 같은 것 가운데 다른 것이 있고, 다르다고 여기면 같지 않았던 적이 없다.”⁷⁾는 이치를 상기해 봄직하다. ‘大小 분별하기’의 개념을 통해보니, ①에서는 대소의 인식 문제가 외양의 인식이 미흡한 데서 생긴다고 보고 正황과 실체를 근거로 활간해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다고 생각된다.

②에서는 활간의 개념을 ‘초점의 차이 확인하기’라고 한다. 가령, ‘體’에는 몸이라는 사전적 의미에 본체나 체질이라는 이치가 없혀 있고, ‘心’에는 마음이라는 사전적 의미에 본성이라는 이치가 없혀 있다. 적지 않은 논자들은 사전적 의미에 멈추는지 넘어서는지를 분별하지 못한다. 이와 같은 문제는 흔하게 발견된다. 理氣 先後의 문제는 그 좋은 예이다. 理先氣後를 定論으로 인식하곤 하지만, 理와 氣는 혼용되어 있어서 先과 後를 가릴 수 없다.⁸⁾ 理를 먼저 말하고 氣를 뒤에 말하는 논자들이 理先氣後로 오인할 따름이다. 形而上·形而下의 문제 또한 마찬가지다. 필요에 따라 초점을 이동시켜 上下를 말할 따름인데,⁹⁾ 논자들은 초점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실제로 上下가 있다고 오인한다. 문제가 표현 논리에 얽매이기 때문에 나타난다고 볼 때, ②의 개념은 표현 논리를 넘어서야 한다는 당위성을 지니고 있다.

③에서는 활간의 개념을 ‘이치에 입각해서 도리 파악하기’라고 한다. 도

7) 以爲同則同中有異 以爲異則未嘗不同 (『晦庵集』 卷61의 答嚴時亨)

8) 又按 理氣混融 本無先後 (韓元震, 『朱子言論同異考』 卷1, 理氣)

9) 『朱子語類』 卷94, <周子之書>太極圖.

리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정합성의 이치에 기대어 보편타당한 도리를 파악해야 하는데, 이것이 어렵다고 한다. 가령, 성인의 기운이 하늘과 합치된다고 할 때는 정합성이 있지만, 문왕이 산 채로 상제 곁에 거한다고 할 때는 정합성이 없다. 기운이 하늘로 오른다는 판단과는 달리, 사람이 산 채로 하늘로 오른다는 판단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부정합성의 상태에서 도리를 파악하고자 한다면 문제가 된다. 정합성을 지니지 못했기 때문에 1차 오류이고, 도리를 그릇되게 파악하기 때문에 2차 오류이다. 性과 氣의 문제도 겹들여서 거론해볼 만하다. 性과 氣를 一物로 보아야 할 자리에서 二物로 보고 人物性의 도리를 판단하는 경우¹⁰⁾도 바로 이런 오류를 내포한다. 이치를 찾은 다음 도리를 외칠 필요가 있을 때, ③의 개념은 좋은 지침이 된다.

대소 분별하기 ————— 외양의 인식 넘어서기
 초점의 차이 확인하기 ————— 표현 논리 넘어서기
 이치에 입각해서 도리 파악하기 ————— 정합성을 통해 법칙 파악하기

①~③에서 거론한 개념을 모아보니, 각기 되새길 만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순차적으로 나열하면 외양의 인식 넘어서기, 표현 논리 넘어서기, 정합성을 통해 법칙 파악하기가 된다. 이와 같은 세 가지의 개념은 두 축을 형성한다. ‘형식 논리 초월’이라는 축과 ‘이성적 판단’이라는 축이 그것이다. 외양의 인식 넘어서기인 대소 분별하기와 표현 논리 넘어서기인 초점의 차이 확인하기는 형식 논리 초월이라는 축을 형성하고, 정합성을 통해 법칙 파악하기인 이치에 입각해서 도리 파악하기는 이성적 판단이라는 축을 형

10) “其謂性同氣異四字 只作理同氣異看 而氣異處看性之不同則可矣 而若謂人物所稟性自同而氣自異 性氣二者 元不涉而判爲二物 則不可矣”(韓元震, 같은 책, 卷1, 人物之性)의 내용 참조.

성한다. 두 축은 서로 간에 의존성이 강하다. 이성적 판단이 선행되어야 형식 논리를 초월하리라는 점에서, 이성적 판단이라는 축은 형식 논리 초월이라는 축의 전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관계를 고려할 때 활간의 개념이 지닌 전체적 특징은 ‘이성적 판단에 의거해서 형식 논리 넘어서기’가 된다.

‘이성적 판단에 의거해서 형식 논리 넘어서기’라는 활간의 전체적 특징은 개념론이면서 당위론이기도 하다. 정합성에 의거해서 표현 논리를 점검하고 대소를 분별해야 활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 있다. 정황이 이러하다면, 세 가지 개념 가운데서 어느 한두 가지라도 빠진다면 문제가 생긴다. ①의 언급에 따라 규정하면 死看이 되고 만다. 死看이란 성인의 언어에 담긴 다층적인 의미를 파악하지 않고 사전적 의미로만 고정시키는 폐단을 가리킨다. 의미를 고정시켜 보는 폐단은 곧 성인의 언어를 죽은 글로 만들어버린다. 다시 말하면, 의미 형성의 입체적이고 역동적인 과정을 포착할 수 없게 된다. 물론, 의도적으로 死看을 피하고자 하는 독서인은 없다. 대부분의 독서인이 의도하지 않는 가운데 死看에 빠지고 만다는 점에서, 활간의 개념 세 가지를 동시에 구현하기가 그만큼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개념을 구현하기가 어려울수록 원칙에 충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원칙에 입각하면 개념 세 가지를 동시에 구현하는 방도뿐만 아니라 문제의 원인까지 짚어보는 계기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주자가 활간의 원칙을 분명히 밝혔으나 하면 그렇지 않다. 활간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많이 언급하면서도 정작 활간의 원칙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언급할 가치가 없어서라기보다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여겼기 때문으로 보인다. 당대에 그런 원칙이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하게 통용된다면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여길 법도 하다. 정황이 이러하므로, 활간의 개념을 통해 원칙을 구체화해 볼 도리밖에는 없다. 활간의 개념에 대해서는 앞에서 세 가지로 살핀 바 있으니, 그 내용을 고려해서 활간의 원칙을 재구하기로 한다.

활간의 원칙

첫째, 판단 기준을 자기 자신에게서 구해서는 안 된다. 자기 자신이 간절하게 여기는 바를 체험하려는 자세를 갖추고,[切己體驗] 글을 글로 보고[以書觀書] 사물을 사물로 보아야 한다.[以物觀物], 대개 체험하지 않고 선입견을 기준으로 사물을 보기[以己觀物]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둘째, 마음으로 뜻을 잡지[以意捉志] 말아야 한다. 마음으로 뜻을 맞이해야 [以意逆志] 비로소 초점의 차이를 분별해낼 수 있다. ‘맞이한다’는 기다림을 말한다. 마음을 비우고 꾸준히 기다리면 뜻은 반드시 찾아온다. 대부분의 독서인은 마음을 아주 급하게 먹고 미리 맞이하려고[急切尋求]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셋째, 성인의 언어가 지닌 특징을 먼저 알아야 한다. 성인은 이치와 도리를 언어에 담았으므로[聖人言語 天理自然], 언어를 통해 이치와 도리를 탐색해야 한다. 즉, 이치와 도리를 紙面에서 구하지 말고, 모름지기 자기 자신에게 돌이킨 다음 점차 외부로 추론해 나아가며 연구해야 한다[就自推究]. 외양이나 표현 논리에 이끌려 외부에서 이치와 도리를 가져오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Ⅲ. 활간의 형식과 내용, 그 지향점

활간론은 형식적 범주와 내용적 범주에 걸쳐 있다. 활간의 자세·태도·방법은 형식적 범주에 속하고 활간의 필요성과 목적은 내용적 범주에 속한다. 양자가 변별적 성격을 지니므로 나누어 짚어볼 필요가 있다. 물론, 나누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활간론은 구조적 차원에서 따져야 할 대상이어서 형식과 내용의 전반적 고찰은 필수적이다. 전반적으로 고찰한다고 해서 활간론을 다룬 70개 조목을 일일이 논의하기는 번거로우니, 적게 다루면서 효과를 높이는 방안이 최선이다. 각 조목의 논점이나 성격을 고려하여 활

간의 형식적 범주와 내용적 범주의 항목을 분별하되 각 항목을 대표하는 몇몇 조목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효율적이라 여겨진다.

1. 활간의 형식

<독서법>에는 활간의 자세·태도·방법에 대한 조목이 40개이다. 활간론을 다룬 조목이 70개임을 상기하면 절반을 상회한다. 이처럼 형식적 범주가 크게 나타나는 현상은 주자가 형식적 범주에 속하는 자세·태도·방법을 중시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형식적 범주인 방법과 자세·태도는 구별되지만, 자세와 태도는 類義語로서 구별이 잘 되지 않는다. <독서법>에서는 자세·태도와 방법이 얽혀 있다. 즉, 자세·태도 속에 방법이 침투하고 방법 속에 자세·태도가 침투한다. <독서법>에서 자세·태도와 방법을 분별하지 않았으니, 본고에서도 구태여 분별하지 않기로 한다. 40개의 활간론 가운데서 내용이 뚜렷한 조목은 26개이다. 26개의 조목을 대상으로 자세나 태도를 집약하는 용어를 추출하고 해당 조목을 표시해 본다.

迎刃而解 : 글의 큰 절목[핵심]을 세 번에서 다섯 번 가량 철저하게 이해하면 그 다음에는 대의 첫 마디가 쪼개지면 나머지는 칼만 대도 나가듯이 쉽게 풀려 나간다. (상/ 조목14)

字看無去 : 매 글자마다 빠져 나갈 곳이 없도록 보아야 한다. (상/ 조목17)

擊首尾應擊尾首應 : 그 머리를 치면 그 꼬리가 응하고 그 꼬리를 치면 머리가 응해야 한다. (상/ 조목21)

一棒一條痕一攔一掌血 : 한 대 때렸으면 한 줄기 흔적이 남아야 하고, 한 번 쳤으면 한 움큼 피가 묻어나야 한다. (상/ 조목24)

玩味心精 : 글의 의미를 이리저리 음미하면 마음이 정갈해진다. (상/ 조목29)

反覆玩味 : 이리저리 음미하며 반복해야 한다. (상/ 조목34)

少看極熟 : 책은 마땅히 조금씩 보아야 하고 지극히 깊게 읽어야 한다. (상/

조목37)

小作大施 : 과정은 적게 잡고 노력은 크게 해야 한다. (상/ 조목39)

沉潛玩索 :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이리저리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상/
조목64)

一重一重見髓 : 한 꺼풀 벗겨내서 한 꺼풀 보고, 다음날 또 한 꺼풀 벗겨내
서 한 꺼풀 보아야 한다. 살갓을 다 벗겨내면 비로소 살이 보이고 살이
다 발라지면 비로소 뼈가 보이며, 뼈가 다 드러나면 비로소 골수가 보
인다. (상/ 조목80)

少少玩索 : 읽을 분량을 조금씩 하고, 내용을 이리저리 검토해야 한다. (상/
조목99)

虛心去看 : 마음을 비우고 글을 보아야 한다. (하/ 조목9)

湛然凝定 : 담담하고 차분한 마음으로 글을 읽어야 한다. (하/ 조목16)

虛心涵養切己體察 : 마음을 비우고 책 속에 폭 빠져서 자신에게 간절히
성찰해야 한다. (하/ 조목21)

涵養玩索 : 마음을 수양하고 논리적 근거를 찾아야 한다. (하/ 조목27)

以意逆志 : 마음으로 뜻을 맞이해야 얻게 된다. (하/ 조목30)

濯去舊聞以來新見 : 이전에 들은 것을 씻어내어야 새로운 것을 본다. (하/
조목32)

沈潛反覆 ; 글을 볼 때 모름지기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생각을 느그럽게
하고 글에 폭 빠져서 반복해야 한다. (하/ 조목34)

以物觀物 : 물은 물로써 보아야 하고, 자신을 기준으로 사물을 보아서는
안 된다. (하/ 조목35)

以書觀書 : 글을 글로 보고 먼저 자신의 견해를 먼저 내세워서는 안 된다.
(하/ 조목36)

就自推究 : 독서는 다만 오로지 지면에서 이치와 의미를 구하지 않아야
하며, 모름지기 돌이켜 자기 자신에게 나아가 자기 외부로 추론해 나
가면서 연구해야 한다. (하/ 조목39)

玩索窮究 : 이리저리 검토하는 것과 끝까지 깊이 있게 연구하는 것, 그 가
운데 하나라도 버려서는 안 된다. (하/ 조목44)

熟看熟思 : 모름지기 깊이 보고 깊이 생각하여 오래되면 저절로 이주 타당

한 도리를 이해하게 되는데, 이른바 글의 핵심이라는 것은 저절로 그 가운데 있을 것이다. (하/ 조목45)

所聞便行 : 배우는 사람은 들은 것이 있으면 모름지기 바로 행해야 한다.
(하/ 조목47)

扶開縫罅 : 여기[본문의 句]에는 원래 꿰뚫 틈새[이해의 실마리]가 있어서 마치 상자와 비슷하니, 단지 스스로 헤집어 열어야 한다. (하/ 조목60)

沈潛玩繹 : 남의 글을 볼 때는 뇌화부동하고 견강부회[隨聲遷就]해서는 안 된다. 내가 옳다고 보았으면 그 때는 믿어도 된다. 모름지기 마음을 가라앉히고 깊이 생각해야 비로소 보이는 곳이 있게 된다. (하/ 조목67)

26개의 조목에는 활간의 자세·태도·방법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활간의 자세·태도·방법을 언급한 문장은 “~해야 한다”나 “~해서는 안 된다”의 어투를 보인다. 주자가 제자에게 활간의 과제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두 가지의 어투를 사용했다. 경각심을 일깨우려는 강도가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해서는 안 된다”가 주자의 의도에 더 부합하는 표현이다. 글의 내용을 궁구하되 자기 기준으로 글을 보아서는 안 되고, 성인의 언어를 존중하되 글의 뜻을 맹목적으로 따라서는 안 되고, 글의 뜻을 철저히 깨치되 그 뜻이 마음에만 머무르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표현이 그것이다. “~해서는 안 된다”의 내용이 활간의 전체 과제를 벗어나지 않으므로, 주자는 제자에게 활간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A하되 a해서는 안 된다’는 식의 어법을 사용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이 독서인을 긴장시키는 기능을 한다.

- 1) 글의 내용을 궁구하되 자기 기준으로 글을 보아서는 안 된다. : 虛心去看, 湛然凝定, 虛心涵養切己體察, 涵養究索, 濯去舊聞以來新見, 沈潛反覆, 以物觀物, 以書觀書, 沈潛玩繹
- 2) 성인의 언어를 존중하되 글의 뜻을 맹목적으로 따라서는 안 된다. : 迎刃而解, 字看無去, 擊首尾應擊尾首應, 一棒一條痕一攔一掌血, 玩味心精, 反覆玩味, 少看極熟, 小作大施, 沉潛玩索, 一重一重見髓, 少少玩

素, 玩索窮究, 熟看熟思, 抉開縫罅

- 3) 글의 뜻을 철저히 깨치되 그 뜻이 마음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
所聞便行, 就自推究

‘~하되 ~해서는 안 된다’의 표현 방식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해당 조목의 용어를 대응시켜 보았다. 빈도수에서 2)가 가장 많고 3)이 가장 적다. 많다고 해서 곧 중요하다고 하기는 어렵다. 각 조목에 여러 내용이 뒤섞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빈도수는 다양한 내용 가운데서 어떤 내용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지를 말해 줄 뿐이다. 정작 눈여겨보아야 할 사안은 1)~3)의 상호 관계이다. 1)에서 자기 기준으로 글을 보아서 안 된다고 했으니 선입견 버리기를 강조했고 2)에서 글의 뜻을 맹목적으로 따르지 말라고 했으니 조건과 정황 파악하기를 강조했고 3)에서 글의 뜻이 마음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했으니 뜻이 마음 밖으로 나아가기를 강조한 셈이 된다. 결국 1)~3)은 ‘선입견 버리기 → 글의 뜻 파악하기 → 마음 밖으로 나아가기’의 과정을 보이는데, 이것이 바로 1)~3)이 보여주는 내적 질서이다.

1)~3)이 보여주는 내적 질서는 <독서법>을 이해하는 데 큰 시사점을 준다. 활간의 형식적 질서, 나아가서는 <독서법>의 질서를 새로운 시각에서 보게 하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독서법>은 주자와 그 제자들의 독서 관련 대화체이다. 제자들은 독서에 대해 이런저런 질문을 하고 주자는 隨人施教에 입각해서 답변하기 때문에 외관상으로는 무질서하다는 인상을 준다. 이런 인상은 1)~3)에 의해 깨어진다. 1)~3)에서 보듯 ‘선입견 버리기 → 글의 뜻 파악하기 → 마음 밖으로 나아가기’의 과정이 활간론의 내적 질서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독서법>에서야말로 뚜렷한 체계가 작동한다고 할 수 있다. 이로 보아 주지는 활간의 형식을 체계화하여 내적 질서를 부여했고, 그런 내적 질서를 <독서법>에 장착해 놓았다고 생각된다. 형식의 내적 질서가 무질서 속에서 나타난다고 해도 좋을 것 같다.

2. 활간의 내용

<독서법>에는 활간의 내용인 필요성과 목적에 대한 조목이 30개이다. 70개의 활간론 조목에 비추어 보면 절반에도 못 미치지만, 수치상으로 적다고 할 수는 없다. 주목할 바는 활간의 필요성과 목적이 활간론의 본질과 연관된다는 데 있다. ‘독서인이 글의 뜻을 유동적으로 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가 활간의 필요성을 나타내고, ‘독서인이 글의 뜻을 유동적으로 볼 때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가 활간의 목적을 나타낸다. 어느 쪽의 設問이든지 간에 활간의 궁극적인 가치와 맞닿기 때문에 활간론의 본질과 연관된다는 언급이 가능하다. 활간의 궁극적인 가치는 무엇인가? 내용이 뚜렷한 23개의 조목 가운데서 논점을 집약적으로 나타내는 용어를 추출해 내고, 활간의 궁극적인 가치에 접근해 보기로 한다.

■ 활간의 필요성

一重一重深沆有得 : 성인의 언어는 한 겹 아래 다시 한 겹으로 싸여 있으므로, 깊고 넓게 살펴야 비로소 바른 이해에 도달하게 된다. (상/ 조목11)

看著縫罅 : 페넨 틈새[이해를 위한 실마리]를 파악해야 비로소 도리를 철저하게 연구할 수 있다. (상/ 조목13)

庖丁解牛 : 백정이 소를 발라낼 때 눈에 온전한 소로 보이는 것이 없다고 했는데, 바로 이것이 글을 분해해서 이해하면 멀리 나아가는 것과 같은 이치다. (상/ 조목15)

聖人言語如千花 : 성인의 언어는 마치 수많은 꽃과 같아서 이름답기 그지 없다. (상/ 조목75)

聖人言語皆枝枝相對葉葉相當 : 성인의 언어는 모두 가지가 가지끼리 상대하고, 잎은 잎끼리 상대하니, 매우 깔끔하다. (상/ 조목76)

聖人言語天理自然 : 성인의 언어는 모두 자연의 이치이다. (하/ 조목24)

聖人言語當然之理 : 성인의 언어는 단지 하나의 이치를 말한 것이다. (하/ 조목86)

聖人言語有脈有在 : 성인의 언어는 본래 말의 맥이 있고 적절하게 배치되

어 있어 각각의 바른 자리가 있다. (하/ 조목125)

▣ 활간의 목적

自家道理浹合透徹 : 독서를 통해 자기와 도리를 서로 수궁하게 하고 꿰뚫게 해야 한다. (상/ 조목5)

一片書與自家滾作一片 : 한 편의 책과 자신을 한 조각으로 일체화해야 한다. (상/ 조목68)

讀書著意玩味方見得義理從文字中 : 독서할 때 마음을 잡고 이리저리 음미해야 비로소 의미가 글자 속에서 나올 수 있다. (상/ 조목85)

讀得通貫義理自出 : 읽어서 철저히 이해한 뒤에는 의리가 저절로 나온다. (상/ 조목86)

人之爲學固是欲得之於心 : 사람이 배우는 것은 진정 마음에서 무엇인가를 얻어서 일체화하려는 데 있다. (하/ 조목1)

讀書窮理當體之於身 : 독서로 이치를 깊이 연구할 때는 마땅히 몸에서 그것을 일체화해야 한다. (하/ 조목2)

讀書攝心 : 사람이 항상 독서한다면 진정 이 마음을 붙들어 항상 존재하게 할 수 있다. (하/ 조목3)

每日讀書心不走作 : 매일 독서하면 이 마음은 달아나지 않는다. (하/ 조목4)

存心讀書一事 : 마음 지키기와 책 읽기는 하나의 일이 되어야 한다. (하/ 조목6)

博學篤志切問近思 : 널리 배워서 뜻을 두텁게 하고, 간절하게 물어서 생각을 가깝게 해야 한다. (하/ 조목15)

涵養本源玩味浹合 : 먼저 본원[마음]을 함양하고, 또한 이미 익숙해진 바른 이치를 이리저리 음미하여 그것이 꼭 자신에게 젖어들어 일체화해야 한다. (하/ 조목16)

得熟會活 : 글을 반복적으로 이리저리 음미해서 글이 익숙해진 뒤에 비로소 이해된 도리가 살아 움직일 수 있고, 살아 움직일 수 있어야 비로소 마음에 수용될 수 있다. (하/ 조목17)

切己體驗 : 독서는 모름지기 자신에게 간절하게 체험하려는 것이다. (하/ 조목37)

反求諸身 : 배우는 사람은 마땅히 성현의 말씀을 자신에게 돌이켜 구해야 한다. (하/ 조목38)

臨事卽理 : 독서하여 그 바른 이치를 강론하고 연구하여 그 시비를 판별하는 것은 일에 임하여 이 이치에 나아가려는 것이다. (하/ 조목48)

활간의 필요성과 목적을 정리해 보니 각기 내용이 판이하다. 활간의 필요성을 논의하는 조목에서는 성인의 언어가 지닌 특징이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활간의 목적을 논의하는 조목에서는 글의 뜻과 讀書人의 일체화 방안이 전반적으로 나타난다. 성인의 언어는 여러 겹으로 되어 있고, 껍데기(툼새¹¹⁾)가 있고, 깔끔하게 정비되어 있고, 수많은 꽃과 같이 아름답다. 이 완벽한 언어 속에 자연의 이치가 들어 있으니 무심코 읽는다면 글의 뜻을 파악할 수가 없다. 여기서 활간의 필요성이 드러난다. 활간을 하면 글에 담겨 있는 도리·이치·의리를 파악할 수 있다. 도리·이치·의리의 파악이 궁극적인 지향점은 아니다. 도리와 이치와 의리가 독서인과 하나가 되고, 그 하나된 결합체가 마음 밖으로 나아가 자연의 이치와 하나가 될 때 지향점에 도달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활간이 추구하는 목적이 드러난다.

일반 독서인이라면 죄다 존재론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고, 그런 한계로 인해 의문에 직면하리라 본다. 성인의 언어와 자연의 이치는 어떤 관계이며, 일체화의 대상이 어디까지인지가 그것이다. 첫 번째 의문은 성인의 언어가 수단인가 목적인가와 연관된다. 성인의 언어는 수단이면서 목적이다. 자연의 이치를 형상화한다는 점에서 수단이고, 도리·이치·의리를 담았다는 점에서 그 자체가 목적이다. 두 번째 의문은 일체화의 구성요소와 연

11) ‘툼새[縫罅]’의 주체는 저작자이다. 독자가 저작자에 의해 제공된 것을 읽는다는 의미로서, 독자가 분석하고자 하는 저작자의 문장을 가리킨다. 송주복, 앞의 책, p.43에 의하면, 주자가 처음으로 사용한 용어이다.

관된다. 일체화의 구성요소는 무한하다. 성현과 독서인, 글의 뜻과 독서인의 마음, 글의 의리와 인간의 도리, 마음의 이치와 자연의 이치가 그 대상이다. 이렇게 보니, 필요성과 목적은 성인의 언어, 독서인, 삼라만상을 떠나 논의될 수 없다. 성인의 언어나 독서인이나 삼라만상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허다한 필요성과 목적의 내용이 생겨나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 있다.

성인의 언어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 : 一重一重深沆有得, 聖人言語如千,
聖人言語皆枝枝相對葉葉相當, 聖人言語有脈有在

독서인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 : 看著縫罅, 庖丁解牛, 自家道理浹合透徹,
一片書與自家滾作一片, 讀書著意玩味方見得義理從文字中, 讀得通
貫義理自出, 人之爲學固是欲得之於心, 讀書窮理當體之於身, 讀書
攝心, 每日讀書心不走作, 存心讀書一事, 學篤志切問近思, 涵養本源
玩味浹合, 得熟會活, 切己體驗, 反求諸身

삼라만상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 : 聖人言語天理自然, 聖人言語當然之理,
臨事卽理

세 가지 중, 독서인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가장 많은 조목을 거느린다. 해당 조목이 16개나 된다. 본고에서 인용한 조목이 <독서법> 전체의 일부분에 불과해서 신뢰성에 의문을 표할 수도 있으나, 실상이 그렇지 않다. <독서법> 전체로 넓혀 보아도 사정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독서인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제일 많은 까닭은 두 가지다. <독서법>이라는 제목에 걸맞게 독서인의 사명을 강조하고자 한다는 점이 그 첫 번째이고, 성인의 언어가 지닌 이치와 삼라만상이 지닌 이치도 결국 독서인에 의해 드러난다는 점이 그 두 번째이다. 초점을 어디에 맞추든지 간에 활간의 궁극적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 활간의 궁극적인 가치는 ‘성인의 언어, 인간, 삼라만상을 관통하는 하나의 이치 찾기’이고, 활간의 내용에 속하는 필요성과 목적은 그런 가치 찾기가 독서인의 사명임을 알려준다.

3. 형식과 내용의 지향점

<독서법>에는 분류상으로 섞일 수 없는 조목들이 뒤엉켜 있지만, 활간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사정이 달라진다. 특정 조목들이 서로 성격을 같이 하며 두 가닥으로 나뉘고, 그렇게 나뉜 가닥이 형식과 내용으로 자리매김된다. 성격이 다른 형식과 내용이라면 긴밀성이 없어야 할 듯하지만, 그렇지 않다. 활간의 형식이 갖춘 질서와 활간의 내용이 갖춘 궁극적인 가치가 서로 호응하며 활간론이라는 거대한 담론을 형성한다. 이를 통해 형식과 내용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추론해 볼 수 있다. 작은 범위에서는 형식과 내용이 서로 맞서지만, 큰 범위 내에서는 형식과 내용이 활간이라는 공동 목표를 향해 서로 內應하는 관계가 아닌가 한다. 앞에서의 논의를 토대로 하여 이 점을 구체적으로 확인해보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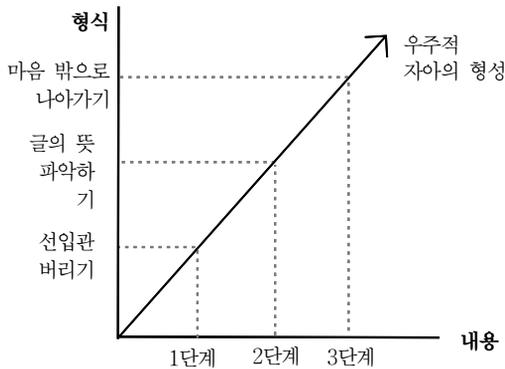
활간의 형식-자세·태도·방법 : 선입관 버리기 → 글의 뜻 파악하기 → 마음 밖으로 나아가기

활간의 내용-필요성과 목적 : 성인의 언어, 인간, 삼라만상을 관통하는 하나의 이치 찾기

활간의 형식이 갖춘 질서와 내용이 갖춘 궁극적인 가치를 한 자리에 정리했다. 형식과 내용이라는 용어만 주목하면 양자는 관련이 없어 보인다. 형식은 형식 그 나름대로 나아가고, 내용은 내용 그 나름대로 나아가는 것 같다. 실제로 양자가 관련이 없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 형식에 속하는 자세·태도·방법과 내용에 속하는 필요성·목적의 관계는 아주 긴밀하다. 자세·태도·방법의 계기적 과정과 필요성·목적이 상호 뒷받침하는 데서 이 점이 드러난다. 필요성·목적이 보여주는 상승 추이를 1단계, 2단계, 3단계라고 지칭할 때, 선입관 버리기는 1단계와 호응하고 글의 뜻 파악하기는 2단계와 호응하고 마음 밖으로 나아가기는 3단계와 호응한다. 이렇게

보니, 활간의 형식과 내용은 도저히 떼낼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형식은 내용에 의존하고 내용은 형식에 의존한다는 언급이 여기서 가능해진다.

형식과 내용의 관계를 이처럼 이해할 때, 몇 가지의 의문에 부딪히게 된다. 한 가지는, 형식과 내용 간에 先과 後가 있느냐 하는 점이다. 예전부터 詩學論의 영역에서 內容과 形式의 선후 관계가 중요한 논점이 되었음¹²⁾을 고려하면 이런 의문은 당연히 생길 수 있다. 다른 한 가지는, 마음 밖으로 나아가기와 3단계가 호응한 이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점이다.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게 마련이라고 보면, 마음 밖으로 나아가기 다음에는 무엇이며 4단계가 과연 새롭게 전개되겠는가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형식과 내용이 호응하여 어떤 결과를 빚어내느냐 하는 점이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게 마련이라고 볼 때 이런 의문은 당연히 생길 수 있다. 제기된 세 가지의 의문이 만만치가 않으므로, 위에서 논의한 바를 그래프로 나타낸 다음 하나하나씩 해결해 보기로 한다.



12) 중국 남북조 양나라의 劉勰, 『文心雕龍』, 崔信浩 譯, (玄岩社, 1975), pp.131-147에 이런 정황이 나타나 있다. 직접적으로 형식과 내용의 관계를 거론하지는 않았으나, 어떤 형식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하거나 어떤 내용에는 어떤 형식이 설정되어야 한다고 하므로, 결과적으로 형식과 내용의 선후 관계를 다루었다고 할 수 있다.

그래프에는 의문 해결의 단서가 갖추어져 있다. 의문이 표명된 순서대로 해결해 보기로 한다. 우선, 형식과 내용 간에는 先後가 없다는 점이다. 선입관 버리기와 1단계가 동시에 호응하고, 그 다음 순서도 또한 마찬가지다. 경우에 따라 어느 한 축에서 다른 한 축을 끌어당기는 수도 있겠으나 頻發하기는 어렵다. 동시 호응의 양상에 비해 지속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 마음 밖으로 나아가기와 3단계가 호응할 때는 탐색 대상이 수없이 많이 앞에 놓인다는 점이다. 대상은 많고 탐색하는 데 장시간을 요하므로 쉽사리 끝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하나의 과제가 해결되면 새로운 영역의 또 다른 과제 앞에서 형식과 내용이 호응한다. 또 그 다음으로, 형식과 내용이 호응한 결과로 우주적 자아가 형성된다는 점이다. 천지만물에서 하나의 이치를 확보했다면 우주의 순리를 따르면서 우주의 이법에 동참하는 자이고, 그런 자는 우주적 자아를 갖추었다고 할 만하다.

세 가지의 의문 중, 셋째 번을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형식과 내용의 지향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것은 바로 우주적 자아의 형성이다. 우주적 자아는 현실세계에 발을 붙이되 활간의 형식과 내용을 구비한 자에게서 나타난다. 생득적으로 활간의 형식과 내용을 구비한 자는 없으며, 노력에 의해서만 구비할 수 있다. 『周易』의 언급¹³⁾처럼 독서인이 敬으로써 내면을 곧게 하고 義로써 행동을 밖으로 드러낸다면 수직으로 상승하는 우주적 자아가 되고, 독서인이 敬은 지니면서 義를 떨치지 못한다면 상승세가 꺾이는 우주적 자아가 되고, 독서인이 人欲에 이끌려 마음에 병통을 지닌다면 우주적 자아와는 거리가 멀어진다. 이렇게 보니, 우주적 자아의 형성 요건은 곧 활간이다. <독서법>에서 독서인에게 그토록 활간하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활간을 통해서만 우주적 자아를 지향할 수 있기 때문이다.

13) 敬以直內 義以方外(『周易』坤卦文言)

IV. 활간 독서법의 성리학적 의의

주자는 성리학의 완성자이고 유학의 집대성자이며 유가적 도통론의 정립자이다. 이런 주자가 활간론을 개진했으니, 활간론에 성리학적 이념이 녹아들 수밖에 없다. 활간론은 성리학적 이념인 수양론·인식론과 연관이 깊다. 수양론은 성인의 가르침을 통해 德을 높이고자 하는 학문이고 인식론은 지식의 기원·구조·범위·방법을 탐구하고자 하는 학문인데, 이와 같은 내용이 활간론의 골격을 이룬다. 즉, 활간론이 성인의 언어와 관련된 논의를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수양론으로서의 성격이 강하고, 격물궁리와 관련된 논의를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인식론으로서의 성격 또한 강하다. 4장에서는 바로 이와 같은 점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고자 한다.

1. 수양론적 근거로서의 성격

활간론에 나타난 성인의 언어에는 인간과 삼라만상의 이치가 담겨 있다. 인간과 삼라만상의 이치는 오직 하나이다. 성인의 언어에는 하나인 이치가 담겨 있지만, 대부분의 인간은 그런 이치를 발견하지 못한다. 독서 병통으로 인해 성인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글 밖으로 성인의 뜻을 가져가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독서인의 단점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활간이 그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활간에 대한 당위성만으로는 독서인을 깨우칠 수는 없으므로, 주자는 <독서법>에서 성인의 언어를 읽어야 하는 이유, 독서 병통과 그 해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했다. 활간론에 바로 이런 의도와 노력이 담겼다는 점에서, 성인의 언어를 둘러싼 일련의 논의는 수양론적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논점을 다지기 위해서는 수양론의 발생 배경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수양론은 人을 天 혹은 理와 동일한 위치에 올려놓는 데서 비롯된다. 하위의 人을 상위의 天 혹은 理와 동일하게 설정하는 이론은 程朱의 '性卽理'說과

‘理一分殊’說이다. 성즉리는 ‘人性이 天理’라는 의미다.¹⁴⁾ 이 단순한 언명이 天과 人의 간극을 허물어뜨리고 인성의 실현을 우주 섭리의 구현으로 격상시키는 기능을 한다.¹⁵⁾ 이일분수는 ‘하나인 理가 개별적 계기에 의해서 분화한다.’는 의미다.¹⁶⁾ 이 언명은 우주의 본체인 太極과 만물의 性을 동일하게 파악함으로써 人의 존재론적 위상을 높이고 人으로 하여금 우주 섭리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 성즉리설과 이일분수설로 인해 人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문제가 생긴다. 人이 天에 도달하지 못하는 현상을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이 그것이다. 여기서 수양론이 대두한다.

수양론을 뒷받침하는 용어는 本然之性和 氣質之性, 道心和 人心, 天理와 人欲이다. 本然之性·道心·天理는 人의 존재론적 위상이 天에 근접한다고 할 때의 본성이나 마음이고, 氣質之性·人心·人欲은 人의 존재론적 위상이 天에 근접하지 못한다고 할 때의 본성이나 마음이다. 전자는 누구나 추구해야 할 본성이나 마음이어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고, 후자는 누구나 지양해야 할 본성이나 마음이어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전자와 후자의 위상이 너무나 차이가 난다. 차이를 좁히기 위해서는 특단의 수양 방법이 요구된다. 存心養性, 居敬窮理, 誠意正心¹⁷⁾ 등은 전자와 후자의 차이를 좁히기 위해 제시된 수양 방법이다. 이런 수양 방법의

14) 天則理也 命則性也 性即理也 (『朱子語類』卷5, 性理2, 조목9)

15) 林憲圭, 『儒家의 心性論 研究』, (韓國學大學院, 1999), p.60 참조.

16) 애초에는 불교 화엄의 理觀이었다. 程頤가 화엄의 이관을 성리학의 명제로 수용했고, 『西銘』에 관한 楊時의 의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理一分殊로 구체화했다. 주자가 이 명제에다 도덕원리를 부여하면서부터 이일분수는 마침내 도리의 차원으로 발돋움했다.

17) 존심양성은 『孟子』〈盡心 上〉에 처음 나온다. 거경궁리는 일종의 공동작이다. ‘거경’은 『論語』〈擁也〉에 처음 나오고 ‘궁리’는 『周易』〈說卦傳〉에 처음 나온다. 주자가 ‘거경’과 ‘궁리’를 조합하여 거경궁리라 하게 된다. 성의정심은 『大學』의 8조목에 처음 나온다.

등장은 활간 독서에 힘입은 바가 크다. 어느 정도로 힘입었는지는 <독서법>의 활간론에 잘 나타나 있다. <독서법>에서 해당 조목을 인용해서 확인해 보기로 한다.

蓋人生道理合下完具 所以要讀書者 蓋是未曾經歷見許多 聖人是經歷見得許多 所以寫在冊上與人看 而今讀書 只是要見得許多道理 及理會得了 又皆是自家合下元有底 不是外面旋添得來 (대개 ①사람이 태어나면서 갖는 도리는 선천적으로 완전하게 구비된 것이지만, 독서해야 하는 까닭은 충분히 도리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성인은 많은 것을 경험을 통해 이해했고, 그 이해한 것을 책에 기록하여 사람에게 보여준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독서는 단지 도리를 충분히 이해하려는 행위이다. ②이해하고 나면, 결국 그 이해한 모든 도리들은 자신이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던 것이고 자기의 외부로부터 굴러들어와 첨가된 것이 아니다.) <『朱子語類』卷10, 學4, 조목2>

이 조목에서는 人의 선천적인 도리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①에서는 독서로써 ‘선천적으로 갖추되 경험하지 못한 도리’를 경험한다고 한다. 선천적으로 갖춘 도리란 성즉리와 이일분수이다. 성즉리와 이일분수는 자연의 섭리로서, 人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도리다. 성인은 이런 도리를 죄다 體認하겠지만, 凡人은 그렇지 못하다. 기질지성이나 인심이나 인욕으로 인해 천지지성이나 도심이나 천리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활간 독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이다. ②에서는 활간 독서 이후의 상황을 설명한다. 글의 뜻을 이해하면 원래부터 모든 도리들을 구유했다는 점을 깨닫는다고 했으니, 활간 독서가 존심양성, 거경궁리, 성의정심 등의 수양 방법을 이끌었다고 할 수 있다. 수양 방법을 쉽게 이끌 수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 냉철하고 단호하지 않으면 수양 방법을 결코 이끌 수가 없다.

- ① 就一段中 須要透 擊其首則尾應 擊其尾則首應 (한 단락 한 단락을 모름지기 철저하게 이해해야 한다. 그 머리를 치면 꼬리가 응하고 그 꼬리를 치면 머리가 응해야 한다) <『朱子語類』 卷10, 學4, 讀書法 上, 조목21>
- ② 須是一棒一條痕 一攔一掌血 (모름지기 한 번 때렸으면 한 줄기 흔적이 남아야 하고, 한 번 쳤으면 한 응큼 피가 묻어나야 한다.) <『朱子語類』 卷10, 學4, 讀書法 上, 조목24>
- ③ 看文字 須是如猛將用兵 直是塵戰一陣 如酷吏治獄 直是推勘到底 決是不恕他 方得 (글을 볼 때는 모름지기 맹장이 병사를 운용할 때 단 한 번의 陣으로 온힘을 다해 끝까지 싸우는 것처럼, 인정 없는 가혹한 형리가 형을 다스릴 때 끝까지 추궁하여 결코 범죄자를 용서하지 않는 것처럼 해야 한다.) <『朱子語類』 卷10, 學4, 讀書法 上, 조목25>

①~③은 활간 독서가 수양 방법을 어떻게 이끄는지를 보여주는 단서이다. 활간 독서는 매우 단호하다. 머리와 꼬리가 응하게 하기도 하고, 흔적이 남고 피가 묻어나도록 때리기도 하고, 맹장처럼 온힘을 다해 싸우거나 가혹한 형리처럼 형을 집행하기도 한다. 그 지향점이 수양 방법을 견인하는 데 있다고 밝히지는 않았으나 활간의 형식과 내용을 고려하면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앞에서 살폈듯이 활간의 형식적 특징은 ‘선입관 버리기→글의 뜻 파악하기→마음 밖으로 나아가기’이고, 활간의 내용적 특징은 ‘성인의 언어, 인간, 삼라만상을 관통하는 하나의 이치 찾기’이다. 형식적 특징과 내용적 특징은 마음의 작용이 철저해야 구현될 수 있으므로, 수양 방법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 너무나 당연하게 활간 독서가 수양 방법을 이끈다는 점에서 활간 독서야말로 수양론적 근거로서의 성격을 지닌다고 단언할 수 있다.

2. 인식론적 방법으로서의 성격

<독서법>의 활간론에서는 성인의 언어를 언급하되 성인의 언어에 머무르지 않는다. 독서인은 성인의 언어를 궁구해서 자신의 마음과 일체화하고

그 성취 결과를 자기의 마음 밖으로 미루어 가라고 하므로, 성인의 언어는 기초 단계에 해당된다. ‘마음 밖으로 미루어 가라.’는 요청이 주목할 만하다. 이 요청은 성인의 뜻이 독서인의 마음을 빠져 나가라는 의미가 아니며, 성인의 뜻으로 事事物物의 性을 탐색해 나가라는 의미이다. 사사물물의 性에 대한 탐색 방법을 성리학에서는 格物窮理라 한다.¹⁸⁾ 활간으로 인해 격물궁리가 가능하다고 볼 때, 활간은 곧 격물궁리의 전제요 원인자이다. 활간이 이런 기능을 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문제가 단순하지 않으므로 격물궁리의 성리학적 의미를 정리한 다음 논점에 접근하기로 한다.

격물궁리는 성즉리와 비견된다. 성즉리의 입장에서는 모든 이치가 마음에 구비되어 있어서 마음을 궁구하면 사사물물의 이치를 알 수 있다고 하고, 격물궁리의 입장에서는 현실의 이치를 탐구하여 자기 자신의 지식을 완전하게 할 수 있다고 한다.¹⁹⁾ 전자의 경우는 마음 밖으로 나아가지 않아도 되고 후자의 경우는 마음 밖으로 나아가야 하므로, 양자를 상충관계라 할 법도 하다. 주자는 상충관계가 아닌 보완 관계로 정리한다. 성즉리는 마음을 밝히기 위해 필요하고 격물궁리는 외물의 이치를 밝히기 위해 필요하다는 『大學章句』格物補亡章의 논조가 그것이다. 격물궁리를 이렇게 볼 때, 성즉리에 비해 다루어야 할 대상이 훨씬 많아진다. 마음을 대상으로 하는 성즉리와는 달리, 무수한 외물을 대상으로 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루어야 할 대상이 많다면 활간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 된다.

격물궁리와 활간의 관계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활간은 격물궁리를 포함하지 않지만, 격물궁리는 활간을 포함한다. 그 이유는 자명

18) 안은수, 『주희의 자연관 형성의 두 원천』, 문사철, 2010, pp.49-64에서 격물궁리의 개념, 성격, 의의 등을 개관하고 있다.

19) 蓋人心之靈 莫不有知 而天下之物 莫不有理 惟於理 有未窮故 其知 有不盡也 是以 大學始教 必使學者 卽凡天下之物 莫不因其已知之理而益窮之 以求至乎其極 至於用力之久 而一旦豁然貫通焉 則衆物之表裏精粗 無不到 而吾心之全體大用 無不明矣 此謂物格 此謂知之至也 (『大學章句』格物致知補亡章) 참조.

하다. 활간은 언어의 뜻을 유동적으로 보는 원칙이므로, 상황과 조건에 따라 언어의 뜻을 유동적으로 파악한 다음 그 뜻을 마음 밖으로 나아가게 한다. 마음 밖으로 나아가는 언어의 뜻이 사사물물에 닿게 되면, 활간은 독자성을 잃고 격물공리의 영역에 자리를 잡는다.²⁰⁾ 이때부터 격물 대상은 언어가 아니라 사사물물이 되고, 대상을 파악하는 주체의 성격도 바뀐다. 주체가 동일한데도 활간만일 때는 독서인이고 격물공리일 때는 격물자이다. 활간이 격물공리에 자리 잡으면서 격물공리의 존립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활간을 격물공리의 모태라고 해도 좋을 것 같다. 바꾸어 말해, 활간 독서법 안에는 언제나 격물공리가 자리나고 있다고 해도 그리 어긋나지 않는다.

- ① 放寬心 以他說看他說 以物觀物 無以己觀物 (마음을 풀어놓고 그의 주장을 기준으로 그의 주장을 보고 사물을 기준으로 사물을 보아야지, 자신을 기준으로 사물을 보지 않아야 한다.) <『朱子語類』卷11, 學5, 讀書法 下, 조목35>
- ② 讀書 不可只專就紙上求理義 須反來就自家身上 以手自指 推究 (독서는 다만 오로지 지면에서 이치와 의미를 구하지 않아야 하며, 모름지기 돌이켜 자기 자신에게 나아가, 손가락으로 자기 자신을 가리키셨다. 자기 외부로 추론해 나가면서 연구해야 한다.) <『朱子語類』卷11, 學5, 讀書法 下, 조목39>
- ③ 看文字 且自用工夫 先已切至 方可舉所疑 與朋友講論 假無朋友 久之自能自見得 蓋蓄積多者忽然爆開 便自然通 此所謂 何天之衢 亨也 蓋蓄極則通 須是蓄之極 則通 (글을 볼 때는 우선 스스로 노력하여 먼저 자신이 간절하고 지극해져야 비로소 의심되는 것을 들추어 벗들과 강론할 수 있다. 설령 벗어 없더라도 오래되면 스스로 능해지고 스스로 알게 된다. 대체로 많이 쌓아두면 홀연히 확 터져서 자연히 통한다. 이것이

20) 활간의 성격은 격물공리 안에 잔존한다. 『大學章句』經一章 註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격물공리를 나타내는 “窮至事物之理 欲其極處無不到也”에서 ‘유동적으로 보기인 활간의 의미가 녹아 있다.

이른바 “저 하늘의 길이로다. 형통하구나”라고 말하는 것이다. 대체로 쌓인 것이 극에 차면 통하니, 모름지기 쌓인 것이 극에 차야 통하게 된다.) <『朱子語類』卷11, 學5, 讀書法 下, 조목77>

①~③은 활간론 안에 격물궁리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보여준다. ①에서는 활간론의 범주를 넘어 격물궁리의 地境까지 들어가고 있다. 사물을 기준으로 사물을 본다든지 자신을 기준으로 사물을 본다든지 하는 데서 그런 점이 확인된다. ②에서 외부로 추론하면서 연구해야 한다는 언급이 격물궁리의 단초이다. 논점은 성인의 뜻을 끝까지 미루어간다는 데 놓여 있지만, 이 논점을 사시물물에 적용시키면 곧 격물궁리로 전환된다. ③에서는 활연관통에 대해 언급하지만, 격물궁리외도 무관하지 않다. 많이 쌓여 극에 도달하면 홀연히 통한다는 내용은 활간이나 격물궁리 모두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니, 격물궁리는 활간론 안에서 다양한 성장 단계를 보인다. 식물의 성장과 견주어보면, ①에서는 떡잎이 고개를 내미는 단계이고 ②에서는 발아 중에 있는 단계이고 ③에서는 이제 막 씨앗을 뿌리고자 하는 단계이다.

격물궁리가 활간론 안에서 자란다고 해서 모두 成體가 되리라는 보장은 없지만, 자란다고 하는 사실 그 자체가 중요하다. ①~③이 저마다 유형적 특징을 지닌다고 볼 때, ①~③의 모든 유형에서 격물궁리의 성체가 자란다고 할 수 있다. 어떤 격물궁리의 논의에서든지 간에 활간이 전제 혹은 원인자가 되기 때문에 이런 언급이 가능하다. 주지하다시피 격물궁리는 인식론 가운데의 하나이다. 인식론이라고 하면 인식의 기원과 본질, 인식의 형성 과정이나 한계 따위를 탐구하는 학문을 총칭하므로, 형상의 이치를 탐구하여 지식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격물궁리는 당연히 인식론의 범주에 속한다. 인식론의 측면에서 볼 때 활간 독서법의 의의는 매우 크다. 격물궁리의 형성에 지속적으로 관여하며 방법론적 근거까지 제공하기 때문에 활간 독서법 없이는 인식론의 중요한 하나의 축이 무너진다는 언급도 가능하다.

V. 결론

『주자어류』<독서법>의 여러 조목에서 활간론이 나타난다. 활간론은 <독서법>의 조목 245개 가운데서 무려 70개의 조목이나 된다. 지금까지 주자 <독서법>에 대한 논저가 10여 편에 이르지만, 어느 논저에서도 활간론의 관점에서 자세·태도·방법과 필요성·목적의 차이를 다루지 않았다. <독서법>에 ‘활간’이라는 용어가 나타나지 않고 그나마 활간론마저도 산발적으로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활간론을 다루기 위해서는 구조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활간의 자세·태도·방법은 형식적 범주에 속하고 활간의 필요성·목적이 내용적 범주에 속하기 때문이다.

주자는 활간의 개념을 『주자어류』 안의 <독서법> 밖에서 언급하고 있다. 활간론의 개념은 세 가지이다. 大小 分別하기, 초점의 차이 확인하기, 이치에 입각해서 도리 파악하기가 그것이다. 이 세 가지를 하나로 정리해보면 ‘이성적 판단에 의거해서 형식 논리 넘어서기’가 된다. 만약 이 개념에 의거하지 않을 때는 死看이 된다. 사간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판단 기준을 자기 자신에게서 구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 그 첫 번째이고, 마음으로 뜻을 잡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 그 두 번째이고, 외양이나 표현 논리에 이끌려 외부에서 이치와 도리를 가져오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 그 세 번째이다.

활간론을 면밀히 따지기 위해서는 형식과 내용의 측면을 골고루 살펴야 한다. 활간의 형식과 내용은 각기 내적 질서와 궁극적인 가치를 지향하고 있다. 활간의 형식이 갖춘 내적 질서로는 ‘선입관 버리기→글의 뜻 파악하기→마음 밖으로 나아가기’의 과정을 들 수 있고, 활간의 궁극적인 가치로는 ‘성인의 언어, 인간, 삼라만상을 관통하는 하나의 이치 찾기’를 들 수 있다. 형식과 내용을 전체적으로 볼 때는 우주적 자아의 형성이라는 지향점이 나타난다. 활간론의 지향점이 ‘왜 우주적 자아의 형성인가?’는 상기

논의에 힘입어 짚어볼 수 있다. 한마디로 말해, 활간을 통해서만 우주적 자아가 형성된다는 점이 그 이유이다.

주자는 성리학의 완성자이고 유학의 집대성자이며 유가적 도통론의 정립자이다. 이런 주자가 활간론을 개진했으니, 활간론에 성리학적 이념이 녹아들 수밖에 없다. 성리학적 이념에 비추어 활간론이 지니는 의의는 무엇인가? 크게 보아 두 가지로 지적이 가능하다. 우선, 활간 독서가 수양론적 근거로서의 성격을 지닌다는 점이다. 독서인이 활간 독서를 하면 기질 지성이나 인심이나 인욕에서 벗어나 천지지성이나 도심이나 천리에 도달하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 있다. 그 다음으로, 활간 독서가 인식론적 방법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는 점이다. 격물궁리의 모태가 활간 독서이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 있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論語』, 『大學』, 『文心雕龍』(劉勰), 『孟子』, 『周易』, 『朱子言論同異考』(韓元震), 『晦庵集』.

2. 단행본

송주복, 『朱子書堂은 어떻게 글을 배웠나』, 청계, 1999, p.43.

林憲圭, 『儒家의 心性論 研究』, 韓國學大學院, 1999, p.60.

3. 논문

강영안, 주자의 독서론, 『철학연구』 53, 철학연구회, 2009, pp.5-24.

김기호, 『朱子語類』<독서법>에 나타난 新意論, 『인문연구』 59, 영남대 인문과학연구소, 2010, pp.1-36.

_____, 고전 독서론 연구와 현황과 과제, 『韓國思想과 文化』 50, 韓國思想文化學會, 2009, pp.48-64.

김은경, 『주자어류·독서법』에 나타난 독서의 의미와 방법, 『敎員敎育』 22(3),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연구원, 2006, pp.113-133.

박문기, 話頭의 내재적 구조 일고, 『한국불교학』 58, 한국불교학회, 2010, pp.10-22.

신태수, 『주자어류』<독서법>에 나타난 독서이론, 『퇴계학논집』 3, 영남퇴계학연구원, 2008, pp.255-302.

안은수, 『주희의 자연관 형성의 두 원천』, 문사철, 2010, pp.49-64.

이용주, 독서와 수양 : 주자의 독서론1, 『종교연구』 15, 한국종교학회, 1998, pp.229-258.

황금중, 주자의 독서론, 『敎育哲學』 47, 교육철학회, 2010, pp.249-281.

Abstract

The Theory of Vital Seeing in Reading Method of *Zhubuziyulei*

Shin, Tea-Su

Juja mentioned the concept of Vital Seeing outside the Reading Method in *Jujaeoryu*. The concept of Vital Seeing is divided into three: differentiation of the lighter and the grave thing, to identify the difference of focus, to grasp a reason based on principles. To put the three differentiative concepts into one, they become 'To go over formal logics according to rational judgement'.

To examine the Theory of Vital Seeing closely, both the form and the content of that Theory should be investigated. The internal order of the form of Vital Seeing is 'to divest oneself of preconceived notion → to grasp the meaning of the written text → to move forward mind. The ultimate value of Vital Seeing is 'to find the one principle penetrating the language of saint, human being, and all things in nature'. In general, the orientation of the form and the content is a formation of universal self.

The Theory of Vital Seeing in view of Neo-Confucian ideology has two significant meanings. One is that Vitally-seeing reading has a characteristic of a cultivative ground for mind and body. The other is that Vitally-seeing has a characteristic of a recognitive method.

Key-words : Juja, Vital Seeing, the Reading Method, the form and the content, universal self, Neo-Confucian ideology.

신태수

영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책교수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방촌동 우방강촌마을 1차 110동 603호

전화번호 : 019-515-8879

전자우편 : sandang@paran.com

이 논문은 2012년 3월 15일 투고되어
2012년 4월 10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2년 4월 20일 게재 확정됨.